

정신전력이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박 일 고 영 건†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전력이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육군 중대급 부대에 소속된 장교, 부사관 및 병사 1327명에게 정신전력, 행복, 우울, 불안, 자살행동 그리고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또 자기보고식 질문지에 더해 추가로 참여자들의 체력등급 수준, 개인표창 경력 및 관심병사 판정 여부에 대한 기록을 수집하였다. 연구 결과, 사회적 바람직성을 통제한 후에도 정신전력은 군 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초해 시사점 및 추후 연구방향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 정신전력, 군 생활 적응, 행복, 자살, 관심병사, 사회적 바람직성

* 본 연구는 2011년도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특별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교신저자 : 고영건,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elip@korea.ac.kr

현대전은 전쟁수단의 발달로 인하여 무기체계의 혁신을 통한 대량과괴력에 의존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각개 군인의 우수한 정신력을 요구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전쟁에서는 무기도 중요하지만 어디까지나 전쟁을 수행하는 주체는 인간이며 인간의 전쟁의지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이다(김학욱, 1989). Scales(2009)는 4차 세계대전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인간 전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육군에서는 베트남전을 비롯한 근래의 여러 패전 경험을 통해 전쟁에서 인간의 정신력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면서 미 육군 전체를 대상으로 정신력을 측정하고 훈련하는 “종합군인 피트니스(Comprehensive Soldier Fitness; CSF) 프로그램”에 약 일억 이천오백만 달러라는 대규모 예산을 할당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Casey, 2011; Seligman, 2011). 이것은 미 육군에서 군인들의 전투 및 기타 군 생활 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해 신체적 단련 외에 심리적 단련이라는 무형전력(無形戰力; Intangible Combat Power)에 역량을 투입하는 대표적인 예이다.

무형전력이란 군인이 전투에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인간으로서 발휘할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 능력과 내재적 가치가 결합된 총화로서 형태는 없으나 분명히 그 실체와 가치가 존재하는 힘을 의미한다(국방부, 1977). 무형전력의 핵심은 인간 요소이며 인간 요소의 핵심은 심리적 요소를 포함한 행태(行態)적 요소이다(이종현, 김환청 및 문광건, 2001).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한 나라의 국방을 책임지는 군인의 무형전력은 전시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개발되고 관리되어야 할 심리적 역량(psychological force)이라 할 수 있다(최병운, 2007). 특히 이러한 무형전력 중에서 전투의지

라 할 수 있는 정신전력(精神戰力; Mental War Power)은 군인의 개별적인 전투력은 물론 그가 소속된 군조직의 전투력에도 긴밀한 영향을 미친다(국방부, 1998).

정신전력의 개념

정신전력은 정신(精神)과 전력(戰力)의 합성어로서 모든 장병이 지휘관을 중심으로 투철한 군인정신, 엄정한 군기, 충천된 사기, 공고화된 단결로 부여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조직화된 전투 의지력을 말한다(국방부, 1998). 이런 점에서 정신전력은 정신을 전투력으로 승화시킨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박성현, 박회락, 이명주, 이종권 및 양태욱, 2010). 이러한 정신전력의 특징으로는 다음의 4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개발에서의 무제한성, 둘째, 심리적 및 환경적 요인에 따른 가변성, 셋째, 구성요소 간 상호작용성, 넷째, 올바른 행위를 위한 가치지향성이다(국방부, 1998).

정신전력의 개념을 정의하는 과정에서 중요시했던 것은 우선은 개념의 모호함과 추상성을 극복하여 개념의 명확성을 추구하는 것이었고 또한 정신전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도나 관리를 위해 조직화될 수 있는 ‘가설적 구성개념’이 무엇이냐 하는 점이였다(이종현과 최광현, 1998). 이러한 ‘가설적 구성개념’의 성격은 다른 나라 군대도 유사한 데, 예를 들어 미군의 경우 사기(morale)를 곧 전투정신(fighting spirit)과 동일시하며 우리의 정신전력과 유사하게 사용하고 있고 영국군의 경우에는 정확한 정신전력 개념을 가지고 있다(이종현과 최광현, 1998). 이러한 ‘가설적 구성개념’의 성격은 다른 나라 군대도 유사한 데, 예를 들어 미군의 경우 사기(morale)를 곧 전투정신(fighting spirit)과 동일시하며 우리의 정신전력과 유사하게 사용하고 있고 영국군의 경우에는 정확한 정신전력 개념을 가지고 있다(이종현과 최광현, 1998). 이러한 ‘가설적 구성개념’의 성격은 다른 나라 군대도 유사한 데, 예를 들어 미군의 경우 사기(morale)를 곧 전투정신(fighting spirit)과 동일시하며 우리의 정신전력과 유사하게 사용하고 있고 영국군의 경우에는 정확한 정신전력 개념을 가지고 있다(이종현과 최광현, 1998). 이러한 ‘가설적 구성개념’의 성격은 다른 나라 군대도 유사한 데, 예를 들어 미군의 경우 사기(morale)를 곧 전투정신(fighting spirit)과 동일시하며 우리의 정신전력과 유사하게 사용하고 있고 영국군의 경우에는 정확한 정신전력 개념을 가지고 있다(이종현과 최광현, 1998). 이러한 ‘가설적 구성개념’의 성격은 다른 나라 군대도 유사한 데, 예를 들어 미군의 경우 사기(morale)를 곧 전투정신(fighting spirit)과 동일시하며 우리의 정신전력과 유사하게 사용하고 있고 영국군의 경우에는 정확한 정신전력 개념을 가지고 있다(이종현과 최광현, 1998).

의 개념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규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중현과 최광현, 1998). 또 정신전력은 몇 가지 요소가 구분되어 작용하기 보다는 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그만큼 정신전력은 추상적이면서도 일체화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박성현 등, 2010).

1997년에 개정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정신전력 지도지침서(국방부, 1998)』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신전력의 구성요소들을 살펴보면, 군인정신과 관련해서는 명예의 존중, 충성심, 용기, 필승의 신념, 임전무퇴의 기상, 애국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군기에 대해서는 법규와 명령에 대한 자발적인 준수와 복종에 중점을 둔다. 그리고 사기와 관련해서는 자기 직책에 대한 이해와 책임감 그리고 정신력과 체력을 증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또 단결의 요체로는 준법정신, 희생정신, 공사의 명확한 구분 및 상호이해를 제시하고 있다.

정신전력은 그 상위 개념인 군사전력이라는 큰 맥락 속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정신전력이 그 차상위 개념인 무형전력과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인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군은 군사전력을 크게 유형전력과 무형전력으로 구분하고 있다. 병력, 무기, 장비, 물자 등과 같이 형체를 가지고 있는 유형전력과 대비된 개념으로서 무형전력은 전투능력인 기술전력과 운용전력 그리고 전투의지라 할 수 있는 정신전력으로 구분된다. 기술전력은 무기, 장비, 물자 등에 대한 사용법 숙달 및 기량 향상을 통해 전투력의 효율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해주는 전력이며 운용전력은 병력, 장비, 물자를 보다 통합적으로 운용하여 승리를 쟁취하고자 하는 전략전술, 지휘통솔, 및 부대관리 능력을 말한다. 이렇게 무형전력의 3가지 구성요소들은 그림 1과 같이 유형전력과 함께 모두 인간의 능력과 의지에 관련되어 있으며 상호보완적 관계를 가진다(국방부, 1998).

다음으로 정신전력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신전력의 개념의 변천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정신전력이라는 용어는 1973년 고 박정희 대통령이 국방부 연두순시에서 “전쟁의 승패는 병력이나 장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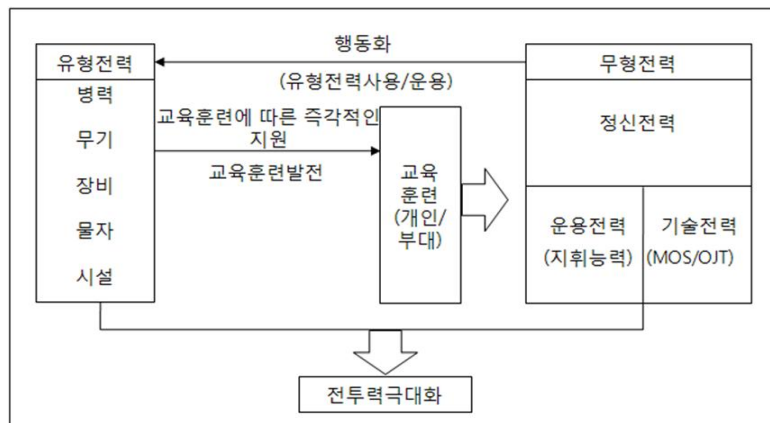


그림 1. 군사전력 체계

주. 조영갑(2004)에서 인용

우월보다도 정신전력에 좌우되므로 모든 부대의 정신전력 수준을 끌어 올려야 한다.”고 지시하면서 한국군에 공식적으로 처음 등장하였다(전병규, 2008). 같은 해 육군본부에서 장교 교재로 발간된 『정신전력 강화법』에는 정신전력을 광의와 협의로 구분하고 군 정신전력을 협의의 개념으로 놓고 휘하 장병이 지휘관의 의도적 요구에 가장 가깝게 사고하고 행동하는 상태 또는 그 정도로 정의하면서 정신전력을 강화하는 데는 지휘관이 그 주체가 되어야 하며 지휘관 자신이 정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정신전력과 지휘통솔과의 연계성 속에서 모색하였다(육군본부, 1973; 전병규, 2008). 초기에는 대통령의 관심 속에서 1977년에 『국군정신전력학교』가 창설되고 이 학교를 중심으로 정신전력에 대한 이론체계와 지휘관과 관련 참모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데 같은 해에 정신전력 관련 교리를 연구하여 최초로 『정신전력 지도이론과 실제』를 발행하여 본격적으로 교육에 반영하기 시작했다(진양갑, 2007). 이 책자에서는 정신전력을 모든 장병이 지휘관을 핵심으로 굳게 단결하여 드높은 사기와 확고한 신념으로 부대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조직화한 무형전력으로 정의하였다. 또 정신전력의 구성요소로는 신념, 사기, 단결을 처음으로 언급하였다. 『정신전력 지도이론과 실제』는 1983년에 『정신전력 지도지침서』로 명칭이 바뀌고 내용도 대폭 보완되었다. 여기에서는 “정신전력이란 모든 장병이 투철한 군인정신의 바탕 위에 지휘관을 중심으로 굳게 뭉쳐 부여된 임무를 능동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조직화된 의지력”으로 정의하고 그 핵심요소로 신념, 사기, 단결, 군기 등을 제시하면서 1977년 국방부에서 정의한 정신전력의 구성요소에서 군기를 추가하였다

(전병규, 2008; 진양갑, 2007). 이처럼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전반까지 약 10년간이 정신전력에 관한 연구와 교육이 가장 왕성했던 것으로 평가된다(진양갑, 2007). 그러나 냉전이 종료되었다는 시대적 상황과 1980년대에 좌경사상 및 김일성 주체사상 비판에 신념이라는 항목이 과도하게 활용된 부작용으로 인하여 1997년 개정할 때에는 신념이 군인정신으로 바뀌게 되었고(박성현 등, 2010) 그 구성요소도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군인정신과 집단적인 차원에서의 사기, 단결, 군기로 구분하여 제시되었다. 이렇게 정신전력에 관한 이론과 지도에 관한 한국군의 기본 지침서로서 『정신전력 지도지침서』는 1998년 이후부터 재발행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첫째 국내·외적으로 급격한 변화의 시기인 1990년대를 거치면서 정신전력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저하되었고, 둘째 이러한 분위기로 말미암아 군 정신전력의 산실이었던 『국군정신전력학교(또는 국방정신교육원)』이 ‘국방개혁 5개년 계획’에 따라 1999년 1월 1일부로 해체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일부 기능을 국방대학교가 수행하고 있지만 과거 독립된 조직체가 있는 것에 비해서 정신전력에 대한 교육과 연구가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진양갑, 2007).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 한국군은 무형전력의 영역으로서 정신전력 개념을 가치지향적인 성격의 구성개념으로써 나름 정의하고 이를 고유의 군사전력체계와 상호 연계시켜 가면서 이론적으로 발전시켜왔음을 확인하였다(국방대학교, 2010). 또 실제적으로는 정신전력 이론 및 교육체계가 시대적인 상황에 영향도 많이 받아 왔는데 특히, 남북관계나 정권교체, 대통령의 통치이념 등 안보상황이나 정치권력의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해온

맞에 그 전문성과 일관성을 꾸준히 유지하기 힘들었다(장영주, 2008).

하지만 정신전력에 대한 개념과 구성요소, 그리고 평가방법에 대해선 더 많은 경험적 연구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지금처럼 『군인복무규율』을 근거로 하여 정신전력 구성요소를 결정하기 보다는 실제 군인들의 정신전력 형성에 중요한 내용으로 구성요소를 판단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박성현 등, 2010). 왜냐하면 Gal과 Manning(1987)이 언급한 바와 같이, 실제로 전장의 병사들은 복잡한 가치관의 문제에 관해서는 신경 쓸 겨를이 없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병사 관리에 필요한 정신적 자세를 측정하기 보다는 실제 전투에 필요한 정신력을 측정하는데 중점을 둔 정신전력의 구성요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이종현 등, 2001). 또 다른 이유로는 장병들의 정신전력을 함양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연계된 형태로 정신전력의 개념과 구성요소를 규정짓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박성현 등, 2010).

정신전력의 평가

점차 시대와 환경의 변화속도에 따라 점차 정신전력의 영역도 기존의 군인정신, 사기, 단결, 군기 등 4대 구성요소에서 환경, 제도, 리더십, 인권, 복지, 사회 등 다양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신전력을 육성하고 관리하는 계층도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한국군은 이제까지 정신전력의 영역의 다양성 확대와 통합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며 객관적이고 통일적인 정신전력 평가도구 개발 및 장병들의 정신전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데 많은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국방대학교, 2010). 하지만 아직까지 엄밀히

말해서 객관적이면서 통일된 형태의 정신전력 평가도구는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그로 인해 이미 보급된 평가도구도 실제 각급 부대에서는 적용상 현실성 부족 등의 이유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으며 각급 부대에서는 임의로 간이 정신전력 평가도구를 개발하여 평가하거나 주로 학습영역 위주로 평가하고 있는 실정이다(국방대학교, 2010).

한국군의 정신전력 평가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정신전력 지도이론과 실제(국방부, 1977)』라는 책자가 나오기 전인 1977년 이전까지는 사기를 정신전력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고 사기를 측정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후 1980년부터 정신전력의 개념과 구성요소가 정립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연구가 시작되었지만 이 당시에도 연구자마다 정신전력의 개념이 일치하지 않아 측정요소가 상이했으며 측정요소별 문항의 타당성도 문제가 되어 실제 야전부대에서 측정결과의 활용도는 낮았다. 예를 들어 조남국(1982)은 요인분석 결과에 기초해 정신전력을 심리적 안정감, 군에 대한 신뢰, 사명의식, 지휘관에 대한 신뢰, 부대에 대한 신뢰 5가지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또 윤상운(1982)은 참모별 직능, 내무생활, 지휘통솔 등을 분석하여 정신전력을 13개 요소로 구분하였다(이종현, 최광현, 1998). 이러한 선행 연구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국군정신전력학교(국방부, 1988)에서는 신념, 사기, 단결, 군기 등 4가지 정신전력 구성요소들의 다양한 속성을 포괄하는 그 하위요소와 구성요소별 지도활동을 추가한 정신전력 검사를 개발해, 전군에 공식적으로 보급한 바가 있다. 이후 1997년 『정신전력 지도지침서』 개정에 따라 정신전력 개념과 구성요소가 변경되었고 그에 따라 한국국방연구소에서는 변경된 구성요소

인 군인정신, 사기, 단결, 군기 등의 수준과 생활교육, 정신교육, 훈련, 부대환경 조성 등의 정신전력 지도활동의 두 가지 영역을 평가하는 도구를 개발하였다(이종현과 최광현, 1998). 이후에 객관적이고 통일적인 정신전력 평가도구의 필요성에 따라 2010년에 21세기군사연구소에서 기존 한국국방연구원(1998)의 평가도구 문항에 기초하여 추가 및 보완된 문항들로 구성된 정신전력 평가도구를 새로 개발하였으나 아직 야전부대에 공식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 단계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군의 정신전력 평가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 초부터 정신전력의 개념과 구성요소가 정립됨에 따라 주로 군사관련 연구소나 일반 학계에 의뢰되어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되어 왔고, 또 나름 상당한 기여를 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 성과들이 하나의 방향으로 계속하여 누적되거나 발전되지 못하고 서로 다른 형태로 진행됨으로써 결국 단절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것이 문제이다. 즉 많은 연구를 했지만, 그것이 계속되는 가운데 새로 보완되지 못하고 원점에서 새롭게 시작하여 반복해 왔다는 것이다(박성현 등, 2010). 이러한 연구 경향으로 말미암아 정신전력의 개념 정의가 미흡한 상태로 유지되어 왔으며 그에 따라 평가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도 후속 연구에 의해 일관되게 개선되지 못했다. 또 그 가설적 구성개념 또한 부대 내 대인관계, 부여된 역할에 대한 보람감, 전투 목표의 구체성 등 실제 전투에 필요한 요소보다는 평시 군 생활에 대한 정신적 자세와 같은 가치지향적인 요소에 머물러 왔다고 볼 수 있다(이종현 등, 2001).

정신전력과 관련된 선행연구

이제까지 정신전력에 관한 연구는 주로 군내에서만 이루어져 왔으며 대부분 안보상황, 리더십, 정신교육, 무형전력 개념 등과 연계해서 문제인식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식의 문헌고찰이나 단순 통계분석 위주의 연구방법이 적용되어왔다(예컨대, 김무일, 2002; 김영삼, 2009; 김오현, 2007; 남봉균, 2001; 노명화와 최병운, 2008; 박화노, 2004; 유명덕, 2008; 장영주, 2008; 진양갑, 2007; 한동원, 2008; 최병운, 2007; 최효석, 2009).

최근에 진행된 경험적인 연구로는 장성우(2001), 이종현 등(1998, 2001), 심재철(2006), 박성현 등(2010)의 연구처럼 정신전력 평가도구를 개발하는 것과 관련된 연구들이 지배적이고 검사 도구에 대한 타당화 및 표준화 연구는 없다. 이 밖에 정신전력 평가도구를 활용한 연구로는 정신전력과 심리적 안녕감 및 자존감 등의 심리적 특성과의 관계 연구(최현동, 2005) 그리고 정신전력과 리더십 및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영향요인 간 관계에 관한 연구들(전병규, 2008; 류홍렬, 2010)이 있는 수준이라서 아직까지는 정신전력이 실제 군 생활 적용에 직접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정신전력에 관한 논문들의 출처를 살펴보면 군사학회에서부터 사회학회, 정치학회, 문화학회, 심리학회 등 다양한 학회에서 산발적으로 발표되고 있는데 이는 정신전력이 아직까지 하나의 독립된 연구과제나 카테고리로서가 아닌 그 형태와 경계가 모호한 영역이라는 사실의 반증이라 할 수 있다(최효석, 2009). 또 정신전력의 개념 정립을 위한 실질적인 요인 탐색과 평가도구의 타당화 등

과 관련된 실증적 연구가 부족하여 현재의 정신전력 개념은 ‘가설적 구성개념(이중현과 최광현, 1998)’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설적 형태의 개념은 엄밀하게 말한다면, 그 구성개념이 경험적 자료에 의해 규정되고 검증되는 구체적인 조작적 정의와는 성격이 다르다(임인재, 김신영 및 김현정, 2003). 따라서 향후 정신전력 이론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개념 및 그들 간의 상호관계를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은 정신전력 이론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군 생활 적응

군대에서의 적응이란 개개인이 군대생활에 행복감을 느끼고 군대임무에 대하여 사명감을 가지며, 직무와 직위에 만족하여 군대에 대하여 시인하는 태도를 갖는 것을 말한다(Stouffer, Edward, Leland, Shirley, & Robin, 1949). 그리고 이윤희(1963)는 Stouffer 등(1949)의 개념을 토대로 군대 적응이란 생리적 적응과 사회적 적응을 의미하며 변화하는 환경에 순응함으로써 군 조직 내에서 부여하는 직책과 직무에 만족하고 군조직의 여러 규범과 질서를 자발적으로 시인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라고 했다. 또 구승신(2004)은 군 조직 적응을 병사들이 군 조직 문화의 한 부분이 되는 동시에 거기에 편입되는 과정으로 설명하면서, 병사들이 군 조직 성원으로 활동하게 하기 위한 사회화와 병사들 스스로 군 조직 내에서의 역할에 자신을 귀속시키는 역할 개인화의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최근 미군에서는 군 생활 적응을 정서적, 사회적, 가족적, 그리고 영적인 영역에서 심리사회적으로 잘 적응된 상태(fitness)로 정의하고 있다

(Peterson, Park, & Castro, 2011).

반면에 군에서의 부적응에 대해서 임우진(2007)은 군의 가치나 규범에 일치되고 수용되는 행동을 하지 못하거나 대인관계 또는 부대 환경에 대한 개인의 행동 양식이 불균형 상태에 있는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 또 안현의, 손난희, 이문희 및 서은경(2007)은 군복무 부적응자를 군입대자 개인의 심리사회적 요인과 군대 조직의 물리적, 사회문화적 요인 간의 부조화로 인하여 개인의 안녕 및 군대와 일반 사회의 안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을 현재 나타내거나 잠재적으로 지니고 있는 자로 정의하면서, 군복무 부적응을 만드는 개인적 요인들과 환경적 요인들, 그리고 이들 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군은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장병들이 조직에 미치게 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제도적 노력들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 생활에서 장병들의 부적응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군복무 부적응 문제에는 총기사건, 병사들의 자살, 성 관련 범죄, 구타 및 가혹행위, 왕따, 약물중독, 탈영 등이 포함된다(안현의 등, 2006).

2007년에 국방부가 육군, 해군, 공군에 복무 중인 2,865명의 병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군내 정신장애 유병률 조사(함봉진 등, 2007)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적어도 한 가지의 정신 질환에 한 번 이상 이환(罹患)된 적이 있는 비율(이하 일년 유병률)은 8.3%로 2006년의 6.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동일한 연령대의 일반 인구에 비해 정신병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신장애의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7년 국방부 조사에 참여한 병사들의 약 19%가 정신건강 관련 상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군 입대 시 병무청과 통합병원에서의 검진을 통해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지원자들이 여과되에도 불구하고 정신장애와 관련해서 이처럼 높은 수준의 유병률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한인영, 2000). 이러한 점 때문에 오래 전부터 군에서의 부적응 문제를 다루는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현재까지 군 생활 적응과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연구대상이 병사에 한정되어 있으며 전 장병들이나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또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주로 스트레스, 우울, 불안, 및 자살 관련 변인들을 조사하는 것을 통해 군 생활 부적응 양상을 다루고 있다(예컨대, 구승신, 2006; 박현철, 2001; 서혜석과 김정은, 2009; 안현의 등, 2007; 엄덕희, 2009; 이주희, 2007; 이해동, 2004; 정미경과 고기숙, 2009; 진석범, 2000; 최혜관과 박숙희, 2009; 한인영, 2000).

정원철과 박영주(2011)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병사의 군 생활 부적응 및 적응력 향상과 관련된 총 121편의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군 생활에서의 부적응 문제를 다루기 위한 개입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34.6%), 군 부적응 관련 요인 연구(33.0%), 자살을 포함한 정신장애 연구(32.1%) 순으로 연구가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현재까지 군 생활에서의 적응과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군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을 분석하는 내용 위주로 진행되어 왔다(김윤근, 2006). 또 지금까지 정신전력과 군 생활 적응 간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선행 연구들에 대한 이러한 검토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는 정신전력과

군 생활 적응 간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군 생활 적응을 개인이 군 생활에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군 조직과 자기 임무에 만족하여 행복을 느끼는 상태라 정의하고자 한다.

군은 상명하복의 엄격한 규율을 따르는 특수한 조직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장병들이 적응 관련 질문에 응답할 때에는 사회적 바람직성에 기초한 긍정 왜곡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둘째, 자기보고식 검사 이외에 체력등급 수준, 개인의 표창경력, 그리고 부적응 병사 판정 여부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함께 수집하는 것이다. 이 때 본 연구에서 부적응 병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중대급 부대에서 중대장이 선정하여 우선순위 등급별로 관리중인 관심병사로 정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사회적 바람직성을 통제했을 때, 정신전력은 군에서의 적응 지표들(행복, 우울, 불안, 자살행동, 체력등급 수준, 개인표창 경력, 관심병사 판정 여부)에 유의미한 설명력(ΔR^2)을 나타낼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강원도, 경상도, 충청도, 및 서울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육군 전·후방 사단의 중대급 부대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은 총 1410부를 배포

표 1.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 인	구 분	빈 도	백분율(%)
성 별	남자	1325	99.8
	여자	2	0.2
연 령	만 19세 이하	123	9.3
	만 20세	475	35.8
	만 21세	380	28.6
	만 22세	148	11.2
	만 23~25세	123	9.2
	만 26~28세	35	2.6
	만 29세 이상	43	3.2
신 분	병사	1162	87.6
	부사관	98	7.4
	장교	67	5.0
근무부대 유형	전투부대	1187	89.4
	전투지원부대	137	10.3
	기타	3	0.2
최종학력	고졸 이하	205	15.4
	대학 재학	1000	75.4
	대학 졸업 이상	122	9.2

하였고 그 중 1385부를 회수하여 설문회수율은 98.2%로 나타났다. 회수된 설문지 가운데 불성실하게 응답된 58부를 제외하고 1327부를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조사방법

본 연구에서 조사방법은 해당부대 대대 실무자나 중대장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사전에 전화로 설문 진행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한 후 우편으로 설문지를 배부 및 회수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중대급 부대에서 관리 중인 관심병사 판정 여부를 군 생활 적응의 하나의 변인으로서 사용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설문에 참여한 부대장의 승인 하에 해당 중대에서 현재 관리중인 관심병사들의 이메일 주소를 확보하였고 이를 연구 참여자들이 기재한 설문지 상의 이메일 주소와 대조 작업을 한 결과, 단순 전입 100일 미만자를 제외한 관심병사 82명과 관심병사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군 생활 적응에 문제가 없는 병사 848명, 그리고 이메일 미기입자 397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측정도구

정신전력

정신전력검사는 개정된 정신전력 지도지침서(국방부, 1997)의 정신전력 구성개념에 따라 한국국방연구원(1998)이 개발한 척도이다. 이 검사는 총 75문항의 자기보고식 검사로서 크게 정신전력 수준평가와 지도활동 평가로 구분되는데 정신전력 수준평가는 총 55문항으로 군인정신 15문항, 사기 15문항, 단결 15문항, 군기 10문항이 구성되며 지도활동은 생활교육 4문항, 정신교육 4문항, 훈련 4문항, 부대환경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신전력검사는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전력과 그 구성요소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또 검사문항 중에서 경험적으로 선정된 25개 문항의 허구척도는 긍정적인 반응왜곡을 탐지하고 있는데 점수가 84점 이상이면 허구반응으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상관분석 결과, 정신전력 허구척도와 정신전력 간에 대단히 높은 상관($r=.934, p<.001$)을 보여 연구결과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전체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84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소인 군인정신은 .87, 사기는 .91, 단결은 .91, 군기는 .84로 나타났다. 정신전력의 하위요인 구성이 타당한지를 검토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해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시행한 결과, $\chi^2=668.628(df=40, p<.01)$ 였으며 CFI=.929, TLI=.903으로 모형의 적합도 기준인 .90 이상을 충족하였으나, RMSEA=.107로 적합도 수용기준인 .05 이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신전력 모형을 하위요인에 기초해 분석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정신전력 하위요소를 제외

한 정신전력 총점만을 통계분석에 활용하기로 했다.

행복(Concise Measure of Subjective Well-Being; 이하 COMOSWB). COMOSWB는 서은국과 구재선(2011)이 주관적 안녕감의 핵심요소인 삶의 만족,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자기보고식 척도로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전체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88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소인 삶의 만족이 .78, 긍정적 정서가 .89, 부정적 정서가 .83로 나타났다.

우울(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이하 CES-D). CES-D는 일반인들이 경험하는 우울 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미국의 정신보건연구원(NIMH)이 개발한 자기보고식 척도로서, 총 20문항이며 4점 척도로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경구, 최상진, 양병창(2001)의 통합적 한국판 CES-D를 사용했다. 본 연구 표본을 통해 얻어진 전체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1로 나타났다.

상태불안(State Anxiety Inventory; 이하 SAI). 상태 불안척도는 Spilberger(1970)가 성인의 불안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상태특성 불안척도(State Trait Anxiety Inventory)의 일부로서, 4점 척도 20문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덕웅, 이창호, 탁진국(1993)이 표준화한 SAI를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 표본을 통해 얻어진 전체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2였다.

자살행동(Suicidal Behavior Questionnaire-Revised, 이하 SBQ-R). SBQ-R은 자살생각과 자살시도의 빈도를 측정하는 자기 보고식 설

문지로서 모두 4문항(7점 척도)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SBQ-R(Osman et al., 2001)을 이혜선(2009)이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1이었다.

군에서의 기타 적응 지표.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검사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군 생활 적응지표를 얻기 위해 올해 체력측정 등급, 군 생활 기간 동안 개인표창 경력, 그리고 관심병사 판정 여부에 관한 정보를 추가로 수집하였다.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최보라(2007)가 Paulhus(1998)의 PDS(Paulhus Deception Scale)와 BIDR-7(The Balanced Inventory of Desirable Responding-7)에 기초하여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 과정을 거쳐 개발한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로서 하위척도는 자기기만적 고양(self deception enhancement)과 인상관리(impression management) 각 10문항씩 총 20문항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바람직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자기기만적 고양은 정직하

게 반응하려고 하지만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려는 경향성을 의미하며 인상관리는 청중을 대상으로 고의적으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주려는 경향성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자기기만적 고양이 .63, 인상관리가 .72였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통계 분석을 위해 SPSS 18.0을 사용하였다. 가설 검증에 앞서 자료가 가지고 있는 인구통계학적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구체적인 연구가설 검증방법으로는 위계적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결 과

본 연구에서 사용된 군 생활 적응 관련 변인들의 평균치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에는 장교, 부사관, 병사로 구분되는 신분별 주요 변인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한 일원변량

표 2. 군 생활 적응 관련 변인들의 평균과 신분별 집단 간 차이검증 결과

변인	전체 (n=1327)	병사 ¹ (n=1162)	부사관 ² (n=98)	장교 ³ (n=67)	F	사후분석
정신전력	194.95(29.96)	192.31(29.47)	211.52(27.79)	216.48(24.81)	38.915**	1<2, 3
행복	18.20(9.46)	17.64(9.39)	22.00(9.76)	22.28(8.04)	16.112**	1<2, 3
우울	12.69(9.04)	13.14(8.94)	9.73(9.13)	9.28(9.18)	11.651**	1>2, 3
상태불안	40.83(8.59)	41.06(8.83)	39.38(6.40)	38.83(6.49)	3.589*	
자살행동	5.43(2.48)	5.47(2.51)	5.15(2.33)	5.04(2.15)	1.625	

* $p < .05$, ** $p < .01$.

분석(ANOVA) 결과 및 사후검정(post-hoc test)으로서의 Tukey 검증 결과가 함께 제시되어 있다.

정신전력의 경우, 신분에 따라 세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F(2, 1321)=38.92, p<.001$, 사후검증 결과, 장교와 부사관 집단이 병사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 행복지수의 경우에도 신분에 따라 세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F(2, 1300)=16.11, p<.001$, 사후검증 결과, 장교와 부사관 집단이 병사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 우울의 경우에도 신분에 따라 세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F(2, 1322)=11.65, p<.001$, 사후검증 결과, 병사 집단이 장교와 부사관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 상태

표 3. 관심병사를 제외한 일반병사 집단과 관심병사 집단 간 차이검증 결과

변인	관심병사 (n=82)	일반병사 (n=848)	t
정신전력	187.24(32.51)	193.53(28.57)	1.879
행복	14.74(11.24)	18.00(9.12)	3.000*
우울	16.62(11.33)	12.44(8.42)	-4.148**
상태불안	44.67(10.52)	40.51(8.28)	-4.238**
자살행동	6.70(3.69)	5.42(2.30)	-4.482**

* $p<.01$, ** $p<.001$

표 4. 정신전력과 군 생활 적응 관련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

	1	2	3	4	5	6		7	8	9
						6-1	6-2			
1. 정신전력	1									
2. 행복	.70***	1								
3. 우울	-.59***	-.73***	1							
4. 상태불안	-.50***	-.64***	.69***	1						
5. 자살행동	-.34***	-.41***	.51***	.33***	1					
6. 사회적 바람직성										
6-1. 자기기만적 교양	.34***	.38***	-.30***	-.22***	-.15***	1				
6-2. 인상관리	.50***	.34**	-.28***	-.22***	-.18***	.21***	1			
7. 체력등급 수준	.12***	.19**	-.14***	-.18***	-.10**	.18***	-.03	1		
8. 개인표창 경력	.17***	.13***	-.11***	-.16***	.02	.11***	.01	.21**	1	
9. 관심병사 판정 여부	-.07*	-.10**	.14***	.14***	.14***	-.09**	.02	-.17***	-.10**	1

* $p<.05$, ** $p<.01$, *** $p<.001$

표 5. 군 생활 적응 관련 변인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종속변인		β	t	수정된 R^2	ΔR^2	ΔF	
행복	1단계	자기기만적 고양	.32	12.62***	.21	.21	171.84***
		인상관리	.26	10.51***			
	2단계	자기기만적 고양	.16	7.66***	.51	.30	
		인상관리	-.03	-1.52			
		정신전력	.66	27.95***			
우울	1단계	자기기만적 고양	-.25	-9.43***	.14	.14	106.42***
		인상관리	-.23	-8.85***			
	2단계	자기기만적 고양	-.11	-4.73***	.36	.22	
		인상관리	.02	.98			
		정신전력	-.56	-21.72***			
상태불안	1단계	자기기만적 고양	-.30	-11.22***	.13	.13	98.91***
		인상관리	-.16	-5.88***			
	2단계	자기기만적 고양	-.18	-7.25***	.28	.15	
		인상관리	.06	2.13*			
		정신전력	-.47	-16.82***			
자살행동	1단계	자기기만적 고양	-.11	-4.12***	.04	.04	30.61***
		인상관리	-.16	-5.61***			
	2단계	자기기만적 고양	-.04	-1.27	.11	.07	
		인상관리	-.01	-.33			
		정신전력	-.33	-10.37***			
체력등급 수준	1단계	자기기만적 고양	.16	6.99***	.04	.04	25.18***
		인상관리	-.08	-2.70**			
	2단계	자기기만적 고양	.16	5.61***	.05	.01	
		인상관리	-.14	-4.39***			
		정신전력	.14	4.24***			
개인표창 경력	1단계	자기기만적 고양	.08	2.79**	.02	.02	13.09***
		인상관리	.10	3.59***			
	2단계	자기기만적 고양	.05	1.55	.03	.01	
		인상관리	.04	1.27			
		정신전력	.14	4.14***			
관심병사 판정여부	1단계	자기기만적 고양	-.10	-3.25**	.01	.01	5.55**
		인상관리	.05	1.42			
	2단계	자기기만적 고양	-.08	-2.48*	.01	.01	
		인상관리	.08	-2.31*			
		정신전력	-.08	-2.27*			

* $p < .05$, ** $p < .01$, *** $p < .001$

불안의 경우에는 신분에 따라 세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F(2, 1322) = 3.59, p < .05$, 사후검증 결과에서는 세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자살행동의 경우에는 세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병사 집단에서 관심병사와 관심병사를 제외한 일반병사로 집단을 구분하여 군 생활 적응과 관련된 변인들의 평균치를 t 검증으로 비교한 결과(표 3), 정신전력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군 생활 적응 변인들에서 관심병사와 일반병사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표 4에는 정신전력과 군 생활 적응 관련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정신전력은 행복과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다. 그리고 정신전력은 우울, 불안, 그리고 자살행동과는 부적의 상관을 보였다. 또 정신전력이 높을수록 체력등급 수준과 개인표창 횟수가 높았다. 그리고 정신전력은 관심병사에 “1”을 할당하고 나머지는 “0”을 할당하던 미변인과 부적의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다시 말해 정신전력이 높을수록 관심병사일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신전력은 사회적 바람직성의 두 하위 변인들, 즉 자기기만적 고양과 인상 관리 모두와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다.

사회적 바람직성과 정신전력이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기 때문에 사회적 바람직성을 통제 한 상태에서 정신전력이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정신전력은 사회적 바람직성을 통제 한 상태에서도 군 생활 적응 관련 모든 변인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지금까지 주로 전투력 차원에서만 관리되어 왔던 정신전력이 군인의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이다. 가설검증 결과, 본 연구의 가설은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사회적 바람직성을 통제했을 때, 정신전력은 군에서의 적응지표들(행복, 우울, 불안, 자살행동, 체력등급 수준, 개인표창 경력, 관심병사 판정 여부)에 유의미한 설명력(ΔR^2)을 나타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가설검증 결과에 기초해, 본 연구에서의 분석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전력을 강화하는 것은 군 생활에서의 정신장애 및 부적응 문제를 줄이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복무 부적응은 군입대자 개인의 심리 사회적 요인과 군대 조직의 물리적, 사회문화적 요인 간의 부조화로 인해 개인의 삶과 군대 조직 및 사회의 안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안현의 등, 2006). 이러한 군대내 부적응 문제는 병사가 군대라는 조직에 적응하는 과정상의 어려움이 빚어낸 심리사회적 결과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군복무상의 부적응은 병사의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커다란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군복무 부적응 문제를 일으키는 위험요인은 정신장애, 신체적 질병과 통증, 사회적 고립, 학대 또는 정신적 외상 경험, 자살 관련 가족력 등 무수히 많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정신장애는 군복무 부적응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심각한 위험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안현의 등, 2006). 이런 점에서 본 연구 결과는 정신전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군에서의 우울, 불안 및 자살행동 등의 정신장애 및 부적응 문제를 관리하는 데 매우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정신전력은 군 생활에서 행복감을 경험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적응은 단순히 부적응적인 문제 행동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자기실현적인 삶을 사는 데까지 도달하는 것을 뜻한다(Ralph & Corrigan, 2005). 사회적 바람직성을 통제했을 때조차도 정신전력이 행복감을 증진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는 본 연구 결과는 정신전력을 강화하는 것이 군대에서의 정신장애 문제를 관리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가 없는 일반 병사들이 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돕는데도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단, 이러한 결과를 해석할 때 군 생활에서의 우울, 불안 그리고 행복에는 정신전력 이외에도 다른 군 조직 및 개인 특성 변인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정신전력은 주관적인 형태의 자기보고 내용뿐만 아니라 체력등급, 개인표창 경력, 그리고 관심병사 판정 여부 등과 같은 객관적인 성격의 정보와도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정신전력은 사회적 바람직성을 통제했을 때조차도 이러한 변인들에 대해 유의미한 설명력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정신전력이 단순히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동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그 효과가 주관적인 자기만족 차원을 넘어 군 생활에서 객관적인 실효성을 나타낼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전력 검사의 타당성 문제이다. 현재까지 정신전력 검사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평가 체계 향상을 위해 별도의 전문적인 전담기구를 통한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타당화 작업이 시행되지 못하였다. 그로 인해 정신전력검사는 타당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국방대학교, 2010). 일례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정신전력 검사문항 중에는 25개 문항으로 구성된 허구척도가 있다. 이것은 긍정적인 반응왜곡을 탐지하는 용도로 제작되었는데 점수가 84점 이상이면 허구반응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상관 분석을 해본 결과, 정신전력 검사 내 허구척도와 정신전력 총점 간에는 .90이 넘는 수준의 높은 상관을 보였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정신전력 척도의 완성도가 부족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정신전력 검사의 타당화를 위한 후속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정신전력은 행복, 우울, 불안, 및 자살행동에 비해 체력등급 수준, 개인표창 경력, 그리고 관심병사 판정 여부와는 비교적 낮은 수준의 상관을 나타냈다. 특히 정신전력과 체력등급 수준, 개인표창 경력, 그리고 관심병사 판정 여부 간 상관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어서 그 의미를 해석하고 일반화하는 데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예를 들면, 정신전력과 관심병사 판정 여부 간 관계에서 상관이 낮게 나타난 데는 더미변인을 활용한 통계적 분석 방법상의 한계도 영향을 주었을 수 있지만, 동시에 바로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정신전력 척도 상의 신뢰도 및 타당도도 그 과정에서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특히 긍정적인 반응왜곡을 탐지하는 정신전력 허구척도와 정신전력 점수 간에 대단히 높은 상관을

나타내는 점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낮은 수준의 상관이 측정 방법에서의 문제 때문인지 아니면 실제로 변인들 간 연관성이 크지 않기 때문인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군 생활 적응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자기효능감, 낮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개인의 동기부여 수준 그리고 자아성숙의 정도 등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정신전력과 군 생활 적응 간 연관성을 분석할 때, 본 연구에서 우울, 불안, 스트레스 그리고 자살행동을 중심으로 적응을 평가한 것보다 더 포괄적으로 적응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정신전력의 문제를 주로 개인 병사의 차원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군대라는 조직 자체의 특성과 조직 내 리더의 특성 역시 정신전력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추후 연구에서는 개인 병사의 특성이 군대라는 조직의 특성 및 문화와 상호작용하는 측면에 대한 분석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군 생활 적응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신세대 병사들의 시각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 예를 들면, 본 연구에서 참고한 Stouffer 등(1949)의 정의는 오늘날의 군대조직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른바 신세대 병사들 역시 군 생활 적응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추가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

참고문헌

- 구승신 (2004). 신세대 병사의 군 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구승신 (2006). 신세대 병사의 정신건강 실태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경기도 육군○○부대 병사들을 대상으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4(단일호), 64-93.
- 구재선, 서은국 (2011). 한국인, 누가 언제 행복한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2), 143~166.
- 국방대학교 (2010). 장병 정신전력평가도구 개발 용역사업 제안요청서. 서울: 국방대학교.
- 국방부 (1977). 정신전력의 지도이론과 실제. 서울: 국방부.
- 국방부 (1983). 정신전력 지도지침서. 서울: 국방부.
- 국방부 (1998). 정신전력 지도지침서. 서울: 국방부.
- 김무일 (2002). 장병정신전력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지휘관을 중심으로 한 종교생활을 통하여. 정신전력연구, 30, 125-162.
- 김영삼 (2009). 군 장병 정신 전력 강화를 위한 군 매체 활성화 방안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오현 (2007). 정신전력과 리더십의 역할정립에 관한 연구. 정신전력논집, 9.
- 김윤근 (2006). 병사들의 군 적응유연성에 영향을 주는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학옥 (1989). 정신전력의 발전. 서울: 배영사.
- 남봉균 (2001). 군 정신전력의 이론적 기초 연구. 정신전력연구, 29, 187-216.
- 노명화, 최병운 (2008). 군 정신교육의 효과성에

- 관한 연구. 국방대학교 연구보고서.
- 류홍렬 (2010). 장병의 리더십 유형과 정신전력의 관계성에 대한 실증연구-중대급 이하 부대의 NI세대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현, 박휘락, 이명주, 오종권, 양태욱 (2010). 정신전력 평가도구 개발 연구. 서울: 21세기군사연구소.
- 박화노 (2004). 실무부대에서의 정신교육 발전 방향. 정신전력연구, 35.
- 박현철 (2001). 군인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 스트레스원,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서은국, 구재선, 이동귀, 정태연, 최인철 (2010). 특별 심포지엄: 한국인의 행복 및 정신건강 지수: 한국인의 행복 지수와 그 의미.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13-232.
- 서은국, 구재선 (2011). 단축형 행복 척도 (COMOSWE)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 95-113.
- 서혜석, 김정은 (2009). 육, 해군병사의 진로발달이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6(6), 25-43.
- 손희락 (2001). 신세대 장병의 스트레스가 부대 적응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유창 (2007). 군 사기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교환이론에 입각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찬미 (2009). 군병원 퇴원예정병사의 군적응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재철 (2006). 국군 정신교육실태와 병영커뮤니케이션 패턴 연구. 서울: 고려대 언론연구소.
- 안현의, 최병순, 손난희, 이문희, 서은경, 이은진 (2006). 2006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군복무 부적응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안현의, 손난희, 이문희, 서은경 (2007). 군복무 부적응 실태 및 인권침해 경험과의 관련성. 상담학연구, 8(2), 425-435.
- 엄덕희 (2009). 군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육군본부 (1973). 정신전력 강화법(장교교재VII). 서울: 육군본부, 장교교재VII, 14-18.
- 유명덕 (2008). 군에서의 정신교육이 병사들에게 미치는 영향의 실증적 연구. 정신전력연구, 10.
- 윤민재 (2008). 군인 인권과 사고(자살)예방프로그램 연구. 민주주의와 인권, 8(1), 79-109.
- 이윤희. (1963). 군대생활의 적응.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종현, 최광현 (1998). 정신전력 평가모형 및 지침 정립.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 이종현, 김환청, 문광건 (2001). 무형전력 평가체계 기반연구-전투요원의 행태적 측면을 중심으로. 서울: 국방연구원.
- 이주희 (2007). 성격특성,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병사의 군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해동 (2004). 상관의 리더십 유형에 따른 사병의 스트레스와 우울 및 불안과의 관계.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선 (2009). 한국판 자살생각척도(K-BSI)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8(4), 1155-1173.
- 임민혁, 미군도 정신건강에 빨간불...특별 프

- 로그랩 시작, 전자조선일보, 2011년 7월 6일자.
- 임우진 (2007). 보호관심병사 지도를 위한 군 상담 활성화 방안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인재, 김신영, 박현정 (2003). 심리측정의 원리. 서울: 학연사.
- 장성우 (2001). 정신전력 태도 평가척도에 관한 실증적 고찰: 정신전력 지도지침서의 항목을 중심으로. 정신전력연구, 28, 131-160.
- 장영주 (2008). 한국전 정훈교육 변화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경구, 최상진, 양병창 (2001). 통합적 한국판 CES-D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1), 59-76.
- 전병규 (2008). 한국군의 정신전력 결정 요인.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원근 (2001). 정신전력 요소의 계량화를 위한 방법론 연구. 정신전력연구, 28, 105-129.
- 정미경, 고기숙 (2009). 군 병사들의 자아존중감과 우울이 자살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연구, 40(4), 453-483.
- 정원철 (2007). 후방복무병사의 군대부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2007년도 국제학술대회(창립 50 주년기념), 481-487.
- 정원철, 박영주 (2011). 병사의 군부적응 및 적응력향상 관련 국내 연구동향의 개관. 청소년학연구, 18, 49-71.
- 제정관 (2004). 장병 정신전력과 신세대 가치관. 정원철. (2006). 병사의 군 부적응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2(2), 73-93.
- 조남국 (1989). 정신전력의 진단도구와 분석 프로그램. 육사 논문집, 36, 241-258.
- 조영갑 (2004). 제 3회 교육훈련발전세미나 - 신세대 장병의 사회인식과 군 정신교육의 방향.
- 진석범 (2001). 군 장병들의 스트레스 요인과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진양갑 (2007). 국방개혁시대의 정신전력 강화 방안. 정신전력연구, 37, 201-238.
- 최광현 (2004). 사기 측정도구 개발. 국방정책연구, 겨울호.
- 최보라 (2007).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타당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병운 (2007). 행위이론과 무형전력의 개념체계. 정신전력연구, 38.
- 최현동 (2005). 군대 조직 구성원의 세대간 심리적 특성 및 정신전력 비교.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혜란 (2009). 군 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우석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혜란, 박숙희 (2009). 군 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상담학연구, 10(3), 1743-1756.
- 최효석 (2008). 정신전력 성과측정 방안 연구. 정신전력논집, 11, 157-193.
- 한덕웅, 이창호, 탁진국 (1993). Spielberg 상태-특성 불안 검사의 표준화. 학생지도연구, 10, 214-222.
- 한동원 (2008). 상·하간 공감대 형성을 통한 정신전력 강화 방안. 정신전력연구, 40.
- 한인영 (1999). 군인의 정신건강문제와 군 사회사업실천의 필요성.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8(단일호), 199-219.
- 한인영 (2000) 군 사회복지사 도입의 필요성 고찰: 미군의 군 사회복지사활동 내용을 중심으로. 국방정책연구, 가을호, 19-35.
- 한태근 (2006). 군 사회복지사 제도 도입 필요성

- 과 제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함봉진, 전홍진, 장성만, 이해우, 이효정, 심은정 (2007). 국방부 연구용역사업보고서 - 군내 정신질환(급성, 외상후스트레스장애 포함)의 유병률 조사. 서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 Casey Jr, G. W. (2011). Comprehensive soldier fitness: A vision for psychological resilience in the US Army. *American Psychologist*, 66, 1.
- Cornum, R., Matthews, M. D., & Seligman, M. E. P. (2011). Comprehensive Soldier Fitness: Building resilience in a challenging institutional context. *American Psychologist*, 66, 4.
- Fravell, M., Nasser, K., & Cornum, R. (2011). The Soldier Fitness Tracker: Global delivery of Comprehensive Soldier Fitness. *American Psychologist*, 66, 73.
- Gal, R., & Manning, F. J. (1987). Moral and its components: A cross-national comparison.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7, 369-391.
- Kimmel, M. J., & O'Mara, F. E. (1981). The measurement of morale.
- Lester, P. B., McBride, S., Bliese, P. D., & Adler, A. B. (2011). Bringing science to bear: An empirical assessment of the Comprehensive Soldier Fitness program. *American Psychologist*, 66, 77.
- Osman, A., Bagge, C. L., Gutierrez, P. M., Konick, L. C., Kopper, B. A., & The suicidal behaviors questionnaire revised (SBQ-R): validation with clinical and nonclinical samples. *Assessment*, 8, 443-454.
- Paulhus, D. L. (1998). *Paulhus Deception Scales (PDS): The Balanced Inventory of Desirable Responding*. North Tonawanda, NY: Multi-Health Systems.
- Peterson, C., Park, N., & Castro, C. A. (2011). Assessment for the US Army Comprehensive Soldier Fitness program: The Global Assessment Tool. *American Psychologist*, 66, 10.
- Ralph, R. O., & Corrigan, P. W. (2005). *Recovery in mental illnes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 385-401.
- Scales, R. H. (2009). Clausewitz and world war IV. *Military Psychology*, 21, 23-35.
- Seligman, M. E. P. (2011). *Flourish: A visionary new understanding of happiness and well-being: William Heinemann* (우문식, 윤상윤 역. 《플로리시》. 서울: 물푸레, 2011.)
- Spielberger, C. D. (1970). *Manual for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 Press.
- Stouffer, S. A., Edward A. S., Leland C. D., Shirley A. S., & Robin M. W. (1949). *The American soldier: Adjustment during army lif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차 원고접수 : 2011. 12. 18

수정원고접수 : 2012. 2. 1

최종게재결정 : 2012. 2. 22

The effect of mental war power on adjustment to military life

Il Park

Young-gun Ko

Korea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effect of mental war power on adjusting to military life. The participants were 1327 soldiers from Seoul, Gyeonggi-do, Gangwon-do, Gyeongsang-do, and Chungchong-do. The present study utilized mental war power, subjective well-being, depression, anxiety, suicidal behavior, and social desirability scale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level of mental war power had a significant effect on psychological adjustment to military life even after social desirability level was statistically controlled. Based on these findings, implications of the present study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 mental war power, *adjustment to military life*, *subjective well-being*, *suicidal behavior*, *social desirability*